

축구&

8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 리그1 복귀 노리는 기업구단 첫 강등팀 '부산 아이파크'



부산은 구도로 불린다. 야구 뿐 아니라 축구의 인기도 뜨거웠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부산 아이파크는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2부로 강등된 첫 기업구단이다. 내년에는 부산을 K리그1에서 볼 수 있을까. 지난 10월 21일 대전시티즌전 승리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부산 선수단.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콤팩트 뉴스

전북, 이동국과 1년 계약 공식발표



이동국

K리그1 챔피언 전북 현대가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39)과 1년 계약연장에 합의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스포츠동아 11월 8일자 8면 단독보도). 2009년부터 시작된 위대한 동행이 2019시즌에도 계속된다. 개인통산 503경기 출전의 급자탑을 세운 이동국은 올 시즌 34경기에서 13골·4도움을 올렸다. 통산 공격 포인트는 215골·75도움. 전북 백승권 단장은 "선수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선수다. 구단은 이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게 도리"라고 했고, 이동국은 "전북에서 현역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 낯 인정해준 구단이 고맙다"고 화답했다.

손흥민, BBC 선정 'EPL 13R 베스트11'



손흥민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이 26일(한국시간) 영국 공영 방송 BBC가 선정한 2018~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 베스트11에 포함됐다. 25일 런던 웹클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정규리그 13라운드 홈경기에서 팀의 세 번째 득점포를 터트린 손흥민은 이날 첫 골을 넣은 팀 동료 킬리언 리베리와 나란히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BBC 이외에 각종 현지 매체들은 50m에 가까운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에 이은 손흥민의 센스 넘치는 득점 장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벤투 감독, 아시안컵 마스터플랜 공개



벤투 감독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의 2019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마스터플랜이 26일 공개됐다. 12월 10일 발표 예정인 태극전사들은 다음날(12월 11일)부터 울산에서 전지훈련을 가진 뒤 22일 대회 결전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출국한다. 일단 국내캠프에는 K리그와 일본·중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만 참여하며 최종엔트리(23명)는 20~21일 무렵 발표된다. UAE 아부다비에 훈련캠프를 차릴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내년 1월 1일 오전 1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선경기를 갖고, 1월 5일 개막할 아시안컵을 대비한다. 한국은 1956년 초대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를 연속 석권한 이후 왕좌에 오르지 못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2전 3기' 리그2 탈출작전, 부산의 봄 오는가?

부산의 전신 대우, 4번 우승한 명문 작년 감독 작고 시련속에 승격 불발 올해 아산 승격 불발로 찾아온 기회 최윤겸 감독 "최고 컨디션 유지 총력"

프로축구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기업구단이 강등된 경우는 딱 한번 있었다. 모두 12번의 강등 사례 중 2015년의 부산 아이파크가 유일하다. 내년 시즌 K리그1 꼴찌로 자동 강등이 확정된 전남 드래곤즈는 두 번째 희생양이다.

부산은 당시 클래식(1부)에서 15경기 연속 무승(6무9패)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 속에 11위로 추락했다. 이어 챌린지(2부) 수원FC와 가진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2연패를 당하며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다. 도시민구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구단 입장에서

2부 추락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더구나 구단의 모기업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주인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

부산구단의 연고를 찾아보면 1970년대 새한자동차를 거쳐 1983년 창단한 대우로 알즈가 전신이다. 대우는 전 관왕을 차지한 1997시즌을 포함해 모두 4번의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명문구단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은 축구도시로 불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안정환을 비롯해 수많은 스타들이 거쳐 갔다. 대우그룹의 해체로 축구단은 2000년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갔다. 하지만 우승 DNA까지 전수되지는 못한 모양이다. 뚜렷한 색깔 없이 중하위권을 맴돌다가 3년 전 강등의 수모를 당했다.

빠른 승격을 다짐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강등의 총력 맞인지 2016시즌 5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1위 아산의 승격 박탈로 가까스로 기회를 얻어 4위 강원과 준PO를 가졌다. 하지만 0-1로 졌다.

지난 시즌은 절호의 찬스였다. 경남에 이어 2위를 마크하며 선수단 전력도, 분위기도 좋았다. 누가 봐도 승격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시즌 막판 조진호 감독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힘겨운 승부가 펼쳐졌다. 1부 11위 상주와 별인승강PO에서 1승1패의 접전 속에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패하며 승격은 도무적이 됐다. 한번 떨어지면 쉽게 탈출하기 힘든 2부의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 시즌이었다. 올해는 3번째 탈출 시도다. 시즌 순위는 3위다. 1위 아산이 경찰청의 선수수급 중단으로 승격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2위 성남이 자동 승격한 가운데 부산은 4위 대전과 5위 광주의 준PO 승자와 12월 1일 격돌한다. 이 경기 승자가 1부 11위와 승강PO를 치른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지휘봉을 잡은 최윤겸 부산 감독의 고민은 깊어간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그는 "주위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겨야하고, 좋

은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축구라는 게 막상 붙으면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축구는 어렵다"고 심각하게 말했다.

올 시즌 용병농사 실패가 뼈아프다. 또 필요할 때 골을 넣어줘야 할 공격수의 잇따른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아쉬움 속에서도 승격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상 과제다. 최 감독은 "어느 팀이 올라오든 쉬운 승부는 아니다.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 시즌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안정을 찾고 적응이 다 된 팀들이며" "경기 당일 컨디션이 중요하네, 그걸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기회를 잘 살려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3년간 2부에서 몸부림치며 권토중래한 부산. 이번에는 기업구단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한 때 K리그를 호령하던 축구도시 부산의 팬들에게 승격이라는 큰 선물을 안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전문기자 choing2@donga.com·체육학 박사

'챔스' 꿈 이룬 김종부 감독 "올해 감동이었어"

(경남)

경남FC에게 2018년은 잊을 수 없는 한해다.

경남은 지난 25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37라운드 홈경기에서 수원 삼성에 2-1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18승10무9패(승점64)를 기록한 경남은 최종 38라운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2위를 확정지었다. K리그1(1부리그) 2위 팀 자격으로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오르게 됐다.



김종부 감독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도 '골 내리걸

작년 K리그1 승격·올해 ACL 티켓 "선수들 고마워...우린 더 강해질 것"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다.

경남 김종부(53) 감독의 감회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팀을 K리그1으로 승격시킨 그는 올해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는 성과를 이룩해냈다.

김 감독은 26일, "지난해 K리그1에 승격한 것도 기쁘지만, 아무래도 올해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준이 높은 K리그1 팀들을 상대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해 성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에게 2018년은 감동이다"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수월전이 끝난 뒤 평소보다 긴 시간 동안 선수들과 미팅을 했다. 그는 "도시민구단의 한계 속에서도 선수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다"고 고마움을 내비쳤다. 덧붙여 "더 중요한 것은 다음이 아니겠는가. 팀의 전력 변화도 있을 것이고 일정보다 더 빠듯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눴다. 더 나아가 경남이 되었다"며 굳게 다짐했다. 정지훈 기자 stop@donga.com

전통놀이 '씨름',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등재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으로 남북 공동 등재는 이번이 처음

남북이 함께 등재를 신청한 전통놀이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됐다. 남북이 동일한 유산을 유네스코 무형 유산에 등재한 적은 있지만 공동 등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26일 오전(현지 시간)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로 공동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측은 지난 2016년 3월, 북측은 2015년 3월에 각각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공식적으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등재신청 이듬해인 2016년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정보보원(등재보유)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 신청서를 수정해 이번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오드레 아즐레 유네



전통놀이 씨름

스코 사무총장에게 남북 씨름의 공동등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고, 북한도 공동 등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냈다. 유네스코 사무국 검토 결과

당초 일정보다 며칠 앞당긴 이날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긴급안건으로 남북 씨름의 공동등재 안건을 제출, 24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공동등재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남북 씨름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eum/Ssireum)'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공동으로 등재됐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남북의 씨름이 그 연행과 전승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공통점이 있고, 평가기준이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전례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